

## 또다른 중동전쟁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

- I. 또다시 중동전쟁인가?
- II. 이란 핵 파일의 진실
- III. 미국의 이란 공격전략
- IV. 이란 공격의 진짜 목적은?

### I. 또다시 중동전쟁인가?

미국의 이란선제공격설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이란 핵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미군 2만 명을 이라크에 증파하는 ‘신이라크전략’을 TV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이 연설 직후 미군은 이라크 북부도시 아르빌에서 이란 연락사무소를 급습해서 6명을 체포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2개의 항공모함을 배치했다. 이것은 이라크 문제를 무력으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도 강경하다. 아흐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은 2월 11일 이슬람혁명 28주년을 맞아 “4월 9일까지 핵 개발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12일에는 미국의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는 누구라도 강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한 지난 17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핵에너지가 “이란의 미래이자 운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공격은 핵 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 II. 이란 핵 파일의 진실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의 핵개발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02년 8월 반체제 인사들의 폭로에서 시작되었다. 이란 저항국민협의회(NCR :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는 핵개발과 연계된 2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와 세부관련 정보를 폭로했다. 현재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면서 대이란 압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 시도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란의 핵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후원으로 출발하였다. 1967년 미국의 지원으로 테헤란 핵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1968년에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1973년 제1차 오일파동 이후 핵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와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부쉐르 지역에 원자로 건설을, 프랑스는 에스파한 지역에 핵연구시설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의 핵개발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가 이란-이라크전쟁 이후 원자력 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격 및 방어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 목적은 크게 정치군사적 측면과 에너지적 측면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군사적 측면으로는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란의 주변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란은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또한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이고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에너지적 측면으로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한 이란이 핵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자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란의 핵 위기는 사실상 중형 탄도 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란은 유효 탑재량 1.2톤, 사정거리 약 1,300km의 중형 탄도 미사일 샤하브 3(Shahab-3)을 개발했다. 샤하브-3 미사일은 2000년 2월 20일 성공적인 시험 발사 이후 실전 배치되었다. 샤하브-3 미사일

의 최초 발사 실험은 1998년 8월이었지만, 최초 테스트가 있기 18개월 전만 해도 미국 정보부 관료는 이란이 그 정도 범위의 미사일을 획득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CIA는 이란이 향후 15년 이내에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CIA는 그 실험이 2010년 이전에 ‘가능하거나’ 2015년 이전에 ‘매우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은 미국의 중동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란과의 직접적인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정권교체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의도이다. 미국을 대신해 유럽연합은 이란에게 이란과의 경제협력, WTO 가입허용, 상용항공기 판매 등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제시하고 있고 안전 보장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의 핵 주권론은 자신의 통치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핵 문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개혁파를 압박하고 있다. 개혁파의 유화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그는 개혁파의 입지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파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는 이슬람 강경노선을 주창하면서 보수파와의 연대를 추진하지만 그의 주요 지지기반은 군부와 민병대이다. 이란의 핵 강경책은 이란 정계의 내부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동의 군사지형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중동지역의 핵확산 경쟁이 확대될 것이다. 우선 이란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쟁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변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Ⅲ. 미국의 이란 공격전략

미국의 이란 봉쇄정책은 중동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 대소련 방어망 구축, 이스라엘의 안보. 이러한 미국의 전략 목표는 탈냉전 시대에서도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단지 대소련 방어망 구축에서 ‘이슬람의 위협’으로 변화되었다. 이란은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 잣대(double standard)와 이중 봉쇄(dual containment)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작년 국방부 내에 이란 시리아 정책 작전그룹(ISOG)을 설치해 이란의 핵시설을 과

과하고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다. 이 기구는 이란의 반체제 인사를 지원하고 이란 재정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5월 미국은 이란 민주화법을 제정했고 위성 TV,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란의 반정부 선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페르시아어판인 '라디오 파르다(Radio Farda)도 이란 민주화법과 이 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방송을 확대 개편했다.

둘째, 미국의 재무부는 작년 10월 헤즈볼라의 테러지원 혐의로 이란의 사데라트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미국인의 금융거래도 전면 금지했고 올 1월에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한 세과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이란에 대한 일종의 금융 제재로 볼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작년 12월 자국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석유 판매대금 등 모든 외환거래를 유로화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이 조치가 산유국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 달러의 약세가 예상된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996년 8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연간 4천만 달러 이상(나중에 2천만 달러로 내림)을 투자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01년에 5년 연장되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여행금지 및 경제제재,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한 추가제재 방침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중동에서 수니파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및 걸프국가들의 수니파 동맹을 강화시켜 이란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시아파 연대(이란-이라크-헤즈볼라)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판 나토인 마토(MATO)를 창설하여 집단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 마토는 이란과 이슬람극단주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친미 수니파 국가로 구성하는 것이다. 25일 체니 부통령은 오만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오만은 전통적인 친미국가이고 전 세계의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해 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항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이란공격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에 앞서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이란공격설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 IV. 이란 공격의 진짜 목적은?

이란의 핵 위협은 진짜일까? 이란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향후

3-5년 정도에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란의 자원과 그 전략적 중요성에 있다.

이란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이란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930억 배럴(세계 5위 및 세계 매장량의 9퍼센트)로 가채연수는 약 70년 정도이고, 천연 가스매장량은 26조 입방미터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세계 전체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란을 통해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에서 개발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지름길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뿐만 아니라 이란 분할안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CIA는 이란 정부에 대항한 반정부 종족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내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서쪽에서는 쿠르드족, 북서쪽에서는 아제리족, 남동쪽에는 발루치족의 종족단체를 통해 이란정부에 타격을 입히려고 한다. 지난 19일 이란정부는 혁명수비대 수송버스를 겨냥한 폭탄 공격에 관련된 발루치족 출신의 조직원을 공개 처형했다.

이란은 미국이 추구하는 중동질서재편을 반대하고 있다.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이고 이슬람세계의 변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은 중동의 질서재편을 위해서 이란의 정권교체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이란의 대결구조 뿐만 아니라 중동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은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란과 시리아의 반미전선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근본적으로 실리주의와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동정책도 일방적으로 친미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우리의 국익과 실리를 토대로 변화되어야 한다. 중동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에게서 이란이 중동 최대의 수출 시장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2007/03/02)

